

들어가면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1:4)

- 막 1: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눅 3:21
- 마 3:13-15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Q. 예수도 요한의 세례, 곧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예수가 도덕적, 종교적 죄 아래 있었다면 =>기독교 신조와 상충되는 문제. 그럼 여기서 "죄"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회개란?

A. 회개에 대하여

1. 회개의 의미, 용법

- 사전적 의미: 잘못을 뉘우침, 고침, 애통해 함(repentance, penitence, contrition)
- 성서적 의미: "...으로부터 돌이킴". "...부터"(ἀπό, ἐκ) 회개하다(렘 8:6; 계 2:21-22; 9:20-21; 16:11); "...에 대해"(περί, ἐπι) 회개하다(렘 18:8, 10; 율 2:13; 온 4:2; 행 8:22; 고후 12:21)
- 문제점
 - 1) 회개의 대상/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왔느니라"(마 3:2),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막 1:15). Q. 뭘 회개해요?
 - 2) 하느님/신께 회개를 촉구: "주여 이 일을 돌이키소서"(μετανόησον) (암 7:3, 6)

2. 회개 다시 읽기

- 뜻 분석. 헬라어 메타노에오(μετανοέω)는 두 낱말의 합성어다(μετά + νοέω).
 - 1) 노에오(νοέω)는 마음(νοῦς)의 동사형으로 '마음 씬, 생각하기'로 이해
 - 2) 메타(μετά)는 장소의 이동, 모양의 변형, 생각의 전환 등 변화의 의미를 함축.
- 성서적 의미에서 회개란기본적으로 '마음 씬의 변화', 곧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행위.
=> 통회 자복보다 더 뿌리깊은 가치관/신앙의 변화다.

B. 죄에 대하여

1. 죄의 뜻/의미. Q. 무엇을 가리켜 죄라고 부르나? (그리고, 그 무엇을 다르게 부른다면?)
 - 죄(라는 단어/개념)가 먼저인가 경험이 먼저인가?=> 롬 5:13 이해.
 - 비종교적 이해=>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道)에서 벗어남이 죄. 그길(道)을 누가 정하나? 뭐라고 부르나? 그 차이에 따라 종교/가치관/이데올로기가 형성.
2. 윙크(Walter Wink),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 지배체제(Domination System)=>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연결망)가 우상(偶像)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36)
 - 육체를 따라 사는 삶=> "타인의 의견에 굴복하여 외면화된 자신," 다른 말로 인간 본연의 가치가 아닌 "지배체제의 가치를 추구"(134-135)하는 삶이다.
3. 죄란? 구조악이다. (본래 인간 본연의 길을 벗어난) 이 세상이 세운 가치, 곧 지배이데올로기
 - 여기에 물들어 있다/ 바꾸지 못하는 상황=> "죄" => 마가복음의 죄(1:4-5).
 - 그 영향/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함이 회개=> 마음가짐을 바꿈 (막 1:14-15).
 - 생각/사상/이데올로기/신학=> 하느님의 복음/가치관으로 바꿈.

C. 믿음에 대하여

1. 죄와 회개와 마찬가지로, 후대 신조와 교리에 따른 믿음(credo, creed) 이해는 복음서와는 무관 => 막 11:22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ἐχετε πίστιν θεοῦ, have faith of God)
 - 누구의 믿음인가?
 - 1) 정체성 문제. 하느님의 믿음 vs. 바알의 믿음. Cf. 출 20:3//신 5:7 => 신 6:4; 막 1:1
 - 2) 내용을 묻는다. “믿음”은 내용(누구)를 담는 그릇. 그 틀에 어떤 신(가치관)을 넣고 있나? => 왜 이 짐무를 하나? 우리 그 뜻안 너무. 교리(틀)에만 관심을 많이 켜다.
 - 칸트: “Thoughts without content are empty, intuitions without concepts are blind.”
 -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content(내용)과 form(틀)로 이해하고=>이걸 우리 주제로 돌려
 - 내용 없는 믿음/틀은 공허하고(empty), 믿음/틀 없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blind).
 - 틀(form)은 안다고 치고, 이제는 내용(content)를 말해야 할 차례.
 - 믿음은 동의, 신뢰를 넘어 “믿는 자”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을 말한다.
2. 믿음과 의심
 - 믿음은 하나에 올인(all-in)
 - 의심은 두 개 이상에 기웃거리는 행위
 - 1) 마 14:31,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가 한 말, “왜 의심했느냐?” (ἐδίστασας => διστάζω)
 - 2) 마 21:21 (=> 막 11:22),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μὴ διακριθῆτε=> διακρίνω)
 - 3) 왕상 18:21, 두 가지/의견 사이를 오가느냐? (עַל-לְפָנֵי יְהוָה וְעַל-לְפָנֵי בָּעֵזֶר) => 왕상 18:26 “제단 위에서 뛰다/넘어가다”(עַל-לְפָנֵי יְהוָה וְעַל-לְפָנֵי בָּעֵזֶר).
 - 현대 히브리 신약성서에서는 위의 세 구절을 똑같이 번역하고 있다: 두 의견 사이를 오가다(עַל-לְפָנֵי יְהוָה וְעַל-לְפָנֵי בָּעֵזֶר).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두 제단 사이를 오가는/넘나드는 행위 => 두 의견(가치관, 복음, 믿음) 사이를 오가는/넘나드는 행위가 의심이다.

결론

1. 복음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말이 “하느님,” “예수”와 함께 쓰일 때, 이를 반드시 목적격(대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교회에서 짜놓은 형식(틀)이고, 대부분 성서 번역본이 선택한 것. 하지만, 다른 길도 있으니...
2. 2격(genitive case)의 대표적 용법은 소유의 의미=> 고로 “하느님의 복음”(막 1:14), “하느님의 믿음”(막 11:22).
3. ‘죄’란 이런 ‘하느님의 믿음’ 곧 그의 뜻, 가치관/철학/복음을 벗어난 상태 혹은 다른 신/가치관/철학/복음을 좇는 마음=> 이것도 믿음이다. 믿음 행위라는 틀(form)의 관점에서.
4. 따라서 ‘회개’란 이런 ‘죄’의 상태에서 다시 ‘하느님의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의식은 이를 천하에 공표하는 예식이다.

생각해 보기

1. 일부 기독교 교리 중 ‘원죄’를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 비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말해 보라.
2. 롬 3:22 “예수의 믿음”(KJV)과 “예수를 믿음”(NRSV, NIV)의 차이점을 말해 보라. (cf. 막 11:22).